

보도시점 2024. 11. 4. (월) 12:00
(2024. 11. 5 (화) 조간)

배포 2024. 11. 4(월) 09:00

우주청, 달 탐사 2단계(달 착륙선 개발) 사업 본격 추진

-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사업 협약 체결 -

우주항공청(청장 윤영빈, 이하 우주청)은 10월 30일(수) 한국항공우주연구원(원장 이상률)과 달 탐사 2단계(달 착륙선 개발)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.

달 탐사 2단계 사업의 목표는 달 착륙선의 독자 개발, 달 표면 연착륙 실증, 과학·기술 임무수행을 통해 독자적인 달 표면 탐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. 이는 지속가능하며 글로벌 우주탐사 트렌드에 부합하는 달 착륙선 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.

※ 달 탐사 1단계(다누리) 사업: 국내 최초 달 궤도선으로, '22년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당초 1년의 임무 기간을 2년 연장하여 '25년 12월까지 과학 임무 수행

사업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33년 12월까지이며, 2032년에 달 착륙선을 발사할 예정이다. 또한 달 탐사 2단계 사업은 ‘혁신도전형 R&D 사업’으로 지정되어,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.

*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을 지향하여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&D 사업

한편, 달 착륙 임무에 필요한 탑재체는 과학·기술 수요에 기반해 관련 기획연구를 통해 선정되며, 착륙지와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.

류동영 우주청 달착륙선프로그램장은 “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의 성공에 이어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을 통해 우주 탐사에 필수적인 달 착륙 및 표면 탐사 기술을 확보하고, 미래 달 기반 우주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 달착륙선프로그램	책임자	프로그램장	류동영 (055-856-5350)
		담당자	사무관	김선훈 (055-856-5352)
			주무관	김민성 (055-856-5351)